

톱뉴스

- 인물
- 지역
- 마켓플레이스
- 상세검색
- 구독신청
- 시작페이지로

크투해외판

- LA 뉴욕
- 호주 일본

- 회사소개
- 구독신청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편집자에게
- 기사입력

HOME > NGO동정

2004-09-13 02:09

내 간을 내주고서라도 딸을 살릴 수 있다면

30대 주부, B형 딸 위해 간기증자 찾아 나서



▲'이 어린 것에 무슨 죄가 있다고...' 이선희 씨가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짓고 있다 © 생명나눔

한 30대 주부 이선희 씨가 간기증자가 없으면 생명조차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젓먹이 딸 박윤지 양(9개월)을 위해 자신의 간까지 기증하며 딸과 혈액형이 같은 기증자를 찾아 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물을 글썽이게 하고 있다.

박양은 생후 1개월 후 황달 증상이 나타나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담도폐쇄증의 진단을 받았다. 지난 2월초 수술을 했지만, 수술후 계속 상태가 악화돼 지금은 간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이사장 임석구 목사)는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혈액형이 B형인 간기증자를 찾고 있다.

한편, 박양의 모친 이선희씨는 자신의 혈액형이 AB형이기 때문에 딸에게 간을 기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딸과 혈액형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있으면 자신도 기꺼이 간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박양은 4월초부터 지금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선희씨는 지난달 8월 윤지양의 아빠와 이혼하는 등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형편이어서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인 박양의 담당 주치의 한석주(소아외과)박사는 "박양의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간을 이식받아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며 "성인에게 이식할 경우 기증자의 간 중 40% ~ 60%나 떼어내야 하지만, 윤지양은 신생아이기 때문에 성인의 간 20%만으로도 간이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 조정진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간기증자는 기증후 1개월정도의 안정을 취한후 3~4개월이 지나면 간의 기능이 회복되고 곧바로 간이 재생되는 데다가, 기증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젓먹이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의: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 조정진 사무총장 (☎ 011-899-0126)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번호	독자의견	이름	날짜	추천	반대
입력된 글이 없습니다					

◀ 1/0 페이지 ▶

[전체의견보기](#) ▶

[독자 의견쓰기](#) ▶

[Top](#)

[섹션바로가기](#) || [전체기사](#) | [교계교단](#) | [목회신학](#) | [선교](#) | [사회NGO](#) | [청년캠퍼스](#) | [문화](#) | [국제](#) | [오피니언](#) | [열린미](#)

[회사소개](#) | [구독신청](#)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편집자에게](#) | [기사입력](#)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크리스천투데이

Tel:02-598-4564 Fax:6008-420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4-23 CMC빌딩 3층

Copyright(c) 2004 The christia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paper@chtoday.co.kr